■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17-644.
http://doi.org/10.17948/kcs.2019..83.617

200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과 그 특징*
—『철학연구』(2000-2016)을 중심으로—

박민철(朴慜喆)**

목 차

1.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분석과 그 '딜레마'
2.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에 나타난 5가지 변화양상
3.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 특징: 철학을 전유하고 재구성하는 방식들, 그 의의와 한계
4. '분단의 학문' 그리고 '학문의 분단'을 넘어서

국문초록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무엇보다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지식, 사상체계, 이념지향의 기반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분석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며, 소수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철학 연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북한철학에 대한 연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북한철학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북의 통치이데올로기로부터 '그나마' 자유로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운 북한철학의 그 자체를 어떻게 분석의 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철학계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의 철학(학술)이 공존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선전적 성격이 그나마 약하다고 평가받는 철학 분야 전문학술잡지 『철학연구』(Research of Philosophy) 중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실린 철학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론과 실천의 종합'이라는 규정력의 유지, '탈이데올로기적' 연구의 증가, 철학연구의 '보편성' 확보 등이 2000년대 이후 강조되는 북한의 철학연구의 특징임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학문의 분단' 그리고 '분단의 학문'을 넘어서서 마련될 수 있는 통합적 코리아학의 한 사례로서 한국(조선)철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북한철학, 철학연구, 철학, 분단, 통일.

1.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분석과 그 '딜레마'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철학적 사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주제였다. 하지만 분단극복을 위한 철학적 사유의 활용범위와 중요성은 분단체제에 기인한 남북의 이분법적 이념구도를 넘어서려는 시도에서부터,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이념지평을 모색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위상을 차지한다. 특히 위정척사, 개화사상, 동학을 비롯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북의 주체사상 등 20세기 한반도의 근현대 역사에서 태동하고 터 잡은 여러 철학 사상들이 지닌 의의와 한계에 대한 반성적 평가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철학적 사유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무엇보다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지식, 사상체계, 이념지향의 기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철학계의 연구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구체적으로 ① 주체사상을 북한철학에 포함시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정립과 체계화 과정, 나아가 그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② 그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정립과 체계화

를 기준으로 그것과 연관된 북한철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 다음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식과는 달리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그 고유한 특징을 살피려는 연구들도 있어왔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연구들은 남북의 이념적 대립이 크게 희석되고 이전 시기보다 북한의 철학자료들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가능했던 2000년 이후 본격화 되었다. 이를테면 ③ 특정 철학자 내지 철학사조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연구경향을 비교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그 다음을 차지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④ 북한 학술지의 분석을 통해 '북한철학자들에 의한 북한철학의 전개'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철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비해 보인다. 특히 북한철학에 대한 연구가 "주체사상 연구와 동일시되어 이데올로기적 연구와 혼재되어 논의되거나, 주체철학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1]는 자기반성적 평가는 매우 정확했다. 즉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내재적 해석과 평가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와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분명하게' 북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북한철학계의 기계화된 연구방식이 우리들의 북한철학 연구를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의 공식적인 철학문헌들이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통치이데올로기를 교양으로 보급시키는 한편, 그것의 이론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북한 철학연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철학계에 있어서 과연 '학문적' 연구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결국 북한철학 연구에 있어서 딜레마는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규정력에 의해 학문적 객관성과 보편성으로부터 일탈한 북한철학이라는 성격이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2], 다른 측면에서 그러

1) 전미영,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및 특성: 한국지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23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6, 200면.
2) 전미영, 「북한 '조선철학'의 연구경향과 학문적 특성」,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466-467면.

한 북한철학의 연구경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철학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고 계승되고 있다는 점, 바로 이러한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발생한다.[3] 따라서 핵심은 북의 통치이데올로기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북한철학의 그 자체를 어떻게 분석의 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하지만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해'가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 및 그 수준을 해석하는 데 일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하지만 북한철학계에서 통치자의 교시와 그것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은 다른 철학연구의 내용과 방향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된다. 나아가 그러한 강력한 규정력이 작동한 연구들이 실제로 북한의 철학연구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내재적 해석과 평가는 '학문의 분단'을 넘어 실현될 수 있는 '온전한 한국학'의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최대한 후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이론적인 단점과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남북의 철학(학술)이 공존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다른 철학지와는 달리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성격이 그나마 약하다고 평가받는 철학 분야 전문학술잡지 『철학연구』[4] 중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실린 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2000년대 이후를 상정한 이유는 북한의 철학연구의 변화양상이 보다 가시적이면서도 특징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3) 이러한 입장에서 이훈은 북한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을 "북한철학계의 외부에 설정된 철학적 환경인 것처럼 다루"자고 주장하며, 이 방법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북한철학자들에 의한 북한철학의 전개'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11면. 실제로 현재까지 북한철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4) 전미영, 앞의 글, 2006, 202면. 『철학연구』는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1962년 창간 이후 통상 연 4회 발행되고 있다.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주체사상이 체계적으로 완성된 그다음 해인 1986년 복간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201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17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평화로운 남북관계와는 전적으로 무관하게 전개되었던 북한 철학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철학연구』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매호마다 ①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교시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제목으로 삼으면서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논문, ②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실천이데올로기들인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붉은기 철학', '선군사상', '총대철학' 등을 해석하고 이론화하는 논문들, ③ 그리고 철학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철학・심리학・윤리학・미학 등의 관점에서 주체사상을 보완・심화하고 있는 논문들로 구성된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②를 제외한 ③에 특히 집중할 것이다. 즉,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들을 세밀화하는 연구들은 제외하고 '최대한' 순수 철학적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철학연구』(2000-2016년)의 논문들은 우선 북한의 통치이념 그리고 실천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글은 최대한 제외하였으며, 특정 철학자와 철학사조 등의 키워드가 제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글로 한정하였다.

2.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에 나타난 5가지 변화양상

1961년 조선 사회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가 기존 '철학연구실'에서 격상되어 신설되었고, 1960년대 중반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가 생겨나면서 북한에서의 철학연구는 그 체계와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철학분야의 학문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가 완성되는 시기와 일치하였고, 이는 곧 주체사상에 의해 북한철학이 재구조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6] 실제로 1970년대까지 북한 철학연구의 범주는

5) 이는 실제 『철학연구』 편집방식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대한 설명, 그다음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붉은기 사상'과 같은 실천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양자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논문에 해당하는 글들은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6) 전미영, 앞의 글, 2006, 209-210면. 이와 같은 범주는 곧 도서분류와 연구성과 평가분류에서도

‘주체철학’과 ‘철학’(부르주아 반동철학 비판, 남조선철학 비판, 부르주아 사회학 비판)으로 분류되거나, ‘주체철학’, ‘부르주아철학’, ‘조선철학’의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일단락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철학에 대한 범주화는 좀 더 세분화되는데, ‘주체철학’을 가장 큰 범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로 ‘조선철학’, ‘윤리학’, ‘미학’, ‘심리학’, ‘세계철학’, ‘종교학’, ‘논리학’으로 구성된다.

『철학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철학 연구의 체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전문학술지였다. 1962년 창간 이후 2019년 3월 기준 통권 155호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문연구기관인 조선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는 『철학연구』는 대중의 사상교양을 담당하는 한편, 북한 학술계 중 특히 철학계의 연구경향을 소개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연구』의 구성은 ‘논문’, ‘강좌’, ‘자료’, ‘개념설명’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붉은기 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등과 같은 통치이데올로기 관련 교양자료가 약 65-70% 정도이며, 이와 구분될 수 있는 개별 철학연구가 30% 미만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철학연구』에 실린 글의 총 편수는 1,716편에 이르는데, 이 중 ‘철학 관련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약 380여 편으로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7] 이러한 논문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철학연구의 양적 증대가 눈에 띈다. 『철학연구』에 수록되는 논문의 편수는 2000년 이전까지 매년 50편 내외에서 머물다가 2000년 이후부터 매년 80편 내외로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편이 넘는 논문이 수록되면서 현재까지 그 편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8] 이때 『철학연구』를 분석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 비

동일하게 설정된다. 강성윤, 「북한의 학문분류 체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6, 15-16면.

7) 해당시기 『철학연구』의 총 편수는 필자가 각 호의 목차를 보고 집계한 것이며, ‘철학 관련 논문’ 구분 역시 제목과 내용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 나오는 모든 집계들은 그 편수에 있어서 오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교할 때 이러한 특징이 갖는 의의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미영의 연구에 따르면 창간 이후인 1962년부터 1967년, 중간의 발간 중단 이후 1986년 복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26년간 발표된 논문의 수가 1,094편인데 반해,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표된 논문의 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를 상회하는 1,716편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철학계의 연구편수 증가는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증가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라는 점이다.

둘째, 이것과 연관해서 분석할 때 『철학연구』에 나타난 연구의 증가는 주체사상으로 대변되는 통치이념 그리고 하위의 실천이데올로기를 제외한 일반논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는 1990년대 북한 철학연구는 한국 학계에서 유행하는 서양 철학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 비판 형식'의 연구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서양철학 자체'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나아가 철학의 개별분과인 심리학・윤리학・미학・논리학・세계철학・조선철학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9]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범위의 확장과 연구편수의 증가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로 『철학연구』의 구성은 2005년을 기점으로 논문집 제일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의 '교시'와 '찬양글'이 이전의 4-5편에서 평균 2-3편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철학의 각 부분을 대표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일반논문의 편수가 평균 10편 내외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곧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계의 연구에 있어서 그나마 상대적

8) 2000년 61편, 2001년 79편, 2000년 96편, 2003년 80편, 2004년 80편, 2005년 90편, 2006년 82편, 2007년 86편, 2008년 100편, 2009년 115편, 2010년 109편, 2011년 114편, 2012년 130편, 2013년 128편, 2014년 119편, 2015년 126편, 2016년 129편 등이다.

9) 이병수, 「북한철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상적 특징」, 『대동철학』 제67집, 대동철학회, 2014, 64면;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0, 70면.

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특히 그동안 주체사상이라는 기준점에 강하게 종속되었던 철학 분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변화양상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할까? 이를 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일반논문의 편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각 논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가이다. 즉 '표면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철학논문 내에서도 특히 북한의 통치이념과 연관성이 적은 순수 철학 분야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셋째,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는 '논리학', '미학', '윤리학', '심리학'과 같은 철학의 각 분과학문에 대한 연구를 증가시켜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연구 분야는 이데올로기 비판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철학' 분야보다 이데올로기 비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순수 철학적 주제들에 가깝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 발행된 『철학연구』를 분석한 전미영의 연구에 의하면 주체철학 외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세계철학(9.68%)이며, 조선철학(7.93%)이 그 뒤를 잇고 있다.[10]

이때 북한의 철학체계에서 '세계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철학의 분과학문을 제외한 '서양철학 전체' 그리고 '맑스주의 철학' 및 '사회(학)이론', 나아가 '동양철학 전체'를 포함하는 가장 큰 범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철학연구』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리학'(72편), '심리학'(52편), '미학과 윤리학'(27편) 등의 순수 철학적 주제와 가까운 내용들이 총 151편으로서 '세계철학' 126편에 비해 더욱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북한 학술계에서 심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사상의 전문화'와 관련이 있었다. 70년대 주체철학의 인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인간론이 아니라 인간

10) 전미영, 앞의 글, 2008, 451면.

중심의 세계관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간 심리를 다루는 연구가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심리학적 논의의 핵심은 주체사상과 관련된 '사상의식'의 본질을 찾는 시도가 주축을 이루었다.[11]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심리학 일반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전체 연구의 87.5%가 주체의 심리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12]음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북한철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학 연구는 대체로 이와 무관한 순수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를테면, 2006년 이후 심리분석과 관련된 통계적 방법론 연구, 심리학과 관련된 교육학적 연구, 심리상담론과 신경학적 연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심리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논리학에 대한 연구경향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 논리학 연구의 증가는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이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한 동시에, 현재 북한철학계에서 순수 이론연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핵심 징표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중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당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평가와 무관하게 형식 논리학 내지 기호 논리학의 법칙과 개념들을 직접 다루는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순법칙, 배중법칙, 동일법칙 등을 제시했지만 사유법칙에 충족이유법칙도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거나[13] 베이컨이 귀납법을 제시함으로써 논리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연역법에 대치시켜 귀납법만을 중시한 한계를 갖는다는 서술이 그러하다.[14] 이렇듯 철학사에 등장하는 논리사상에 대한 평가는 세계관과 계급적 성격이 아니라 주로 논리적 견해의 불충분성과 단편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

11) 김익현, 앞의 글, 70-71면.
12) 전미영, 앞의 글, 2006, 221면.
13) 량호철, 「사유법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9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1면.
14) 최호찬, 「베이콘의 귀납론리사상에 대한 평가」,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48면.
15) 김익현, 앞의 글, 86-87면.

넷째, 심리학과 논리학을 이어 윤리학 분야의 확장 역시도 북한철학계의 순수 이론적 연구 증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철학연구』를 통해 등장하고 있는 2000년 이전의 윤리학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도덕과 의리 등 윤리적 당위성으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 아래, 대체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등을 제시해 왔다.[16]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2010년 들어 변화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2012년 '환경윤리'가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2014년의 '기술윤리'와 '직업윤리', 2015년의 '정보윤리'와 '건축윤리', '인터넷윤리'를 다루는 논문에 이르기까지 현대 윤리학 연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드러내는 마지막 특징은 '조선철학'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네 가지의 특징이 2000년대 이후 보다 두드러지는 경향 내지 변화라고 할 때, 조선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 시기 전후 모두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철학계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2000년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유지될 관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조선철학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원칙은 '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이다. 전자가 피지배계급의 요구를 대변하는 철학사상을 발굴, 계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민족문화의 본질을 해명함에 있어 당대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철학계의 조선철학에 대한 분석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으로 표상되며, 이러한 도식은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철학계에서는 물질적인 기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유물론과 관련하여 기일원론 철학의 성립과 발생, 그 조류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는 질문은 200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5가지의 특징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가이다. 앞서 말했듯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그나마

16) 이병수, 앞의 글, 66면.

상대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순수 이론연구에 가까운 글에서도, 반드시 북한 통치자들의 교시가 글의 서두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시가 해당 논문이 추구하는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근거 짓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구조화되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통치자의 교시가 대다수 철학연구의 기본원칙과 관점을 규정하는 '불가침의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철학이 사상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인상", "철저한 '당적 통제'에 입각한 연구기반에 기초"[17]하다는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에 대한 평가들은 여전히 부정하기 힘든 설득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히 2000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북한철학계의 지식체계 전체가 모두 완벽하게 그러하다고 속단할 순 없다. 지식 생산자로 향하는 그 사회의 존재구속성이 설령 압도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딘 가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빗겨나가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철학계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철학의 현실적 적용'이라는 철학함의 기본태도,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관점의 긍정성에 보다 주목하면서, 통치이념과 무관하게 북한철학계가 철학의 개별분과와 주제들을 자신들의 지식체계 속으로 전유하고 재구성하는 방식과 논리일지도 모른다.

3.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 특징: 철학을 전유하고 재구성하는 방식들, 그 의의와 한계

따라서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북한 '철학함'의 고유한 방식, 관점, 논리를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단순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서서 북한의 철학연구에 대한 내재적 해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순수 이론적 측면에서 철학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막연한 접근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지점이다. 오히려, 북한철학계에서

17) 전미영, 앞의 글, 2008, 467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있어서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을 우선적으로 괄호친 이후에 드러나는 경향과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1) '이론과 실천의 종합'이라는 규정력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달라지는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논리학의 법칙과 개념들을 직접 다루는 논문들이 거의 매호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논리학 연구의 증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북한의 당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리학 관련 거의 모든 논문들의 서두에는 논리학 연구가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불러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철학계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논리학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18] 위해서이다.

북한철학계의 논리학 연구는 대체로 '개념', '정의', '가정', '관찰', '추리', '판단', '귀납적 방법', '류비', '유추' 등과 같이 사유의 과학적 법칙과 관련된 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외에 논리학과 관련된 특정 철학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적은 논리학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방식이 차지하고 있다.[19] 더불어 2003년, 2004년부터 기호논리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호에 의거함 없이는 과학연구 사업을 고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다"[20]는 서술처럼 북한의 당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정리하면 북한철

18) 박경숙, 「리론과 실천의 결합관계」,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1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5면.

19) 량호철, 앞의 글; 강정순, 「부을의 기호론리학적 견해」,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최호찬, 앞의 글, 2003; 「뽈 로야르롤리학사상과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9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20) 장광현, 「과학적인식에서 리용되는 기호의 특징」,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36면.

학계의 논리학 연구는 과학기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물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기본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사고과정에 올바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철학계의 논리학 연구를 오직 그러한 국가적 필요성 내지 군사정치적 요구에 의한 철학연구로 규정하고 그 외에 특징을 부차화하는 방식은, 북에서 수행해 온 철학연구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물론 논리학연구의 심화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논리학 연구의 모든 내용과 의의가 그것으로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철학계의 논리학 연구 증가와 연관되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인 '이론과 실천의 종합'이라는 강력한 규정력이다.[21] '과학적 인식과 혁명적 실천'이라는 도식은 논리학, 기호논리학, 인식론 등의 철학적 분과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북한철학계에서 인식과 실천은 결코 따로 분리되어 서술되지 않는다. '혁명적 실천을 위해선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만 혁명적 실천이 가능하다'[22]와 같이 인식과 실천은 상호전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식만을 강조하거나 실천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때 인식은 실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면서도 인식은 사물현상, 사회정치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활동이며[23], 실천은 그러한 과학적 인식에 대응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24]

이러한 입장은 논리학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

21)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다룬 소수의 선행연구들 역시 이와 같은 '실천의 강조'를 지적한다. 북한 철학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철학'의 진리성의 최종심급은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다. 홍건영, 「주체사상 체계 확립 이후의 북한철학: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182면.

22) 로정철, 「류비추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1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37면.

23) 리금철, 「제3자배제법칙의 본질과 역할」,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1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35면.

24) 유향선, 「론리적오유의 본질」,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2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7면.

북한학계에서 논리학의 역사는, 근대까지 사유형식으로서 개념, 판단, 추리 등의 사유형식과 동일법칙, 모순배제법칙, 리유충족법칙 등의 사유법칙 등을 다루는 전통논리학[25],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의 기호논리학 등을 대표로 현대논리학으로 구분된다. 이때 기호논리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강조되는데 바로 북한철학계의 논리학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철학계에서 기호논리학은 "너무 도식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람들이 실질로 절실히 요구하는 많은 측면에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즉 일상생활과는 멀어진 학문이라는 것"[26]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철학계에서 사고의 법칙을 배우는 것도 현실에서의 응용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철학연구』의 논리학 관련 글들은 대체로 논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논증(논리학)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27]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2) '탈이데올로기적' 연구의 증가

2000년대 이후 전개된 북한철학계의 연구가 갖는 특징은 논리학 연구의 증가 외에 심리학 연구의 폭발적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철학계의 심리학 연구에 대한 특징은 그동안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왔다. 특히 주체사상의 심화와 관련되어 1986년 이후부터 '요구와 지향', '감정과 심리', '각오와 의지' 등 주체철학의 관점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다루는 연구가 강조되어 왔으며[28], 이에 따라 심리학 자체를 다루

25) 최호찬, 「근대유럽의 전통론리학사상에 대한 평가」,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2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0면.
26) 박광일, 「비형식론리의 발생」,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2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42면; 「론리학의 발전추세」,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2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9면.
27) 로은범, 「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방법」,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6면.
28) 김익현, 앞의 글, 70-71면.

고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전체 연구의 87.5%가 이러한 '주체의 심리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29]

하지만 2000년 이후 북한철학계가 수행하고 있는 심리학 연구는 그 전 시기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별점을 드러낸다. 『철학연구』에서 발표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심리학 관련 논문은 약 52편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때 주체철학과 연관된 심리학 연구는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심리연구와 심리실험' 및 '심리분석 및 심리상담분석' 등 심리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주의력결핍', 'ADHD', '학습장애', '조울증', '정서장애' 등 주체의 심리학과 구별되는 '보다 전문화된 연구주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 체계화되는 심리학 연구는 그동안 북한철학계에서 축적된 연구성과의 기반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로 북한철학계에서 주체철학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기존까지 강조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심리학 연구가 연구의 발전 및 심화와 연관된 응용심리학 분과들에 대한 연구로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30] 그런데 이와 같은 응용심리학 분과들에 대한 연구의 증가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기여해야 한다는 북한 학술계의 고유한 목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탈이데올로기적 연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즉 '심리학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의 이유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을 띈다. 심리학 연구가 주체철학의 인간론과 관련된 핵심 연구주제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특이할 만하다.

나아가 2010년 이후 북한철학계의 심리학 연구는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라는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으며, 학문영역에서의 목표로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31]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체사상과 관련된 '사상적·의식적 심

29) 전미영, 앞의 글, 2006, 221면.

30) "사람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인간이 진행하는 구체적인 활동분야별 심리를 연구하는 응용심리학의 분과들이 많이 생겨 나는 과정에 인간언어활동과정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심리학이 나오게 되었다." 안명옥, 「인간의 언어생활과 언어심리학」,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38면.

리'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와 욕망, 의지와 감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주제가 옮겨가고 있음이 강조된다. 이제 심리학 연구는 심리를 가진 인간이 사회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거나[32],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관련되어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과 감정, 의지 등의 심리적 체험과 표현 등이 심리학의 연구주제가 된다고 언급된다.[33]

'탈이데올로기적 연구'의 증가라는 북한철학계의 최근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된다. 여기서 심리학 연구는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지니고 문명화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한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심리학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2014년 '새세대들의 교육을 현대화하라'는 새롭게 바뀐 북한 통치자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의 변화이긴 하나, 이로부터 특히 학교 내 심리, 청소년 심리, 주의력, 학습장애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이다.[34]

3) 철학연구의 '보편성' 확보

북한철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조선철학의 특수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 철학연

31) 김광협, 「심리평가에 대한 리론적견해」,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3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6-37면.
32) 박명남, 「심리상담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5면.
33) 김심일, 「피복심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8면.
34) 박정철, 「주의력결핍 및 다동증(ADHD)에 대한 일반적리해」,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안철국, 「학습장애의 특징」,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최은희, 「심리평가의 발전력사」,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4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류성일, 「청년의 심리적특징」,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구의 보편성은 그동안 보이지는 않았던 동양철학이 연구주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북한의 철학연구에 있어서 '동양철학'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해 왔다.[35]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련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노자, 묵자, 장재, 왕충 등과 같은 중국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등장하거나, 고대와 근대의 '동양철학' 및 '인도철학' 등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36] 바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북한철학계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방식의 연구, 다시 말해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에서 도출된 연구경향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북한철학계의 연구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주체철학의 방법론을 교조적으로 답습함에 따른 '학문적 객관성과 보편성으로부터의 일탈'에 맞춰지거나, '북한의 철학이 주체사상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정리로 귀결되었다.[37] 물론 여전히 주체사상(철학)의 강력한 규정력이 압도적이며 연구경향의 변화 역시 국가 차원의 전략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철학계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

35) 김교빈, 「남북한 철학의 비교와 반성」, 『인문과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19면; 이훈, 앞의 글, 6면.

36) 김철만, 「묵가의 인식론과 그 제한상」,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8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리영남, 「고대, 중세 인디아철학에서 제기된 세계에 대한 견해의 특징」,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8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김철만, 「제자백가철학에서 제기된 륜리도덕적견해의 제한성」,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8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리성환, 「중세인디아의 〈신인명〉론리에 대한 평가」,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8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최철진, 「범진의 유물론사상」,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9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고창선, 「동방철학사에서 인간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상」,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0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장일경, 「고대중국의 덕치사상과 그 반동성」,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0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김인경, 「장재의 〈태허즉기〉 사상연구」,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1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김학룡, 「왕충이 제기한 인식론적 견해」,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2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리영남, 「고대중국의 무신론과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3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김영준, 「근대동방철학사상의 특징으로서의 반침략애국주의적성격」,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3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윤국철, 「맹자의 인정론」,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4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a; 「로자의 〈소국과민〉 사상」,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b; 리창덕, 「고대중국무신론의 의의」,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7) 전미영, 앞의 글, 2008, 467면;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126면.

로운 연구주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철학적 지식과 인식들이 새롭게 축적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철학계의 전략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윤리학 연구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존 북한철학 연구에 있어서 윤리학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등을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38]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윤리학 연구는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조금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등장하고 있는 응용윤리학 분야의 연구는 그러한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영역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철학연구』에서는 윤리학 연구는 2013년의 '관광윤리', 2014년의 '직업윤리', 2015년의 '정보윤리', '건축윤리', '방송윤리', '인터넷윤리', 2016년의 '봉사윤리' 등으로 연구주제가 확대되면서 관련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한다. 2012년에 발표된 「환경륜리의 본질과 특징」은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인 '환경윤리'를 제목으로 내세운, 나아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응용윤리학 분야의 연구들의 시작을 알린 글이다.

이 논문에서 환경윤리는 "자연환경의 개조와 리용에서 사람들 호상간에 량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이치"로 규정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철학계의 환경윤리에 대한 연구는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철학계에서 환경윤리는, 환경윤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도덕적 관계 및 그 규범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강조는 필자] 도덕적관계의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39] 즉 북한철학계에서 말하는 환경윤리는 자연환경과 인간이 맺는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환경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도덕적 관계에 보다 강조점을 둔다. 인간 및 인간관계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이러한 관점은

38) 이병수, 앞의 글, 66면.
39) 장대국, 「환경륜리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3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4면.

여전히 강한 규정력을 갖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결국 환경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아직까지 어떤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윤리에 대한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철학적 설명을 제기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북한철학계의 분위기이다.

이 글에서 환경윤리는 '민족적, 지역적 특성의 범위'를 벗어난 '전지구적 범위, 전 인류적 범위'에서 작용하는 광범한 대중적 특성을 지니는 학문영역으로 규정된다.[40]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오염과 파괴는 '국경선과는 무관한 국제적 성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이 갖는 보편적 성격은 북한철학계에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철학연구의 보편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 실제로 북한철학계에서 '직업윤리'는 사회생활 전반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윤리가 구체화된 것으로서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설명되며, '정보윤리'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정보가 사회경제생활에서 다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되며, '인터넷윤리'는 국제적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된다.[41]

북한 철학연구의 이와 같은 경향적 변화는 미학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이후,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한 새로운 미학이론인 '주체의 미학'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핵심은 아름다움의 미학적 본질과 기준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로부터 찾는 것은 북한철학계의 연구들을 다룬 기존 연구성과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향이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학 그 자체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설명들이 발견되는데, 2010년의 '환경미'를 시작으로, '도시미'와 '건축미', '체육미', '복장의 미' 등을 다룬 논문들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김혜선은

40) 같은 글, 35면.

41) 리정옥, 「직업륜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4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2면; 리혁, 「정보륜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5면; 강철, 「망륜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4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0-31면.

2010년과 2015년에 '건축미'와 관련된 논문을 『철학연구』에 게재하였는데, 2010년의 글에서는 '주체의 건축미'라는 개념과 함께 주체사상과 연관된 건축미를 강하게 강조하는 데 반해, 2015년의 글에서는 '건축미' 자체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건축미 및 건축예술을 다루고 있다.[42] 즉, 이와 같은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의 변화는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철학계의 윤리학 및 미학연구와는 달리 조선철학에 대한 연구는 그와 대비되는 방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간략히 말해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흐름과는 달리, 여전히 북한철학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선철학(한국철학)' 연구는 어떤 '특수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1980년 중후반대에 들어 북한철학계에서는 보다 독자적인 '조선철학사'를 정립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다.[43] 여기서 조선철학사는 진보적인 철학과 반동적인 철학 사이의 투쟁, 즉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유물론과 변증법'과 '그 지향과 요구를 억제한 관념론과 형이상학'의 투쟁사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주체철학의 등장 이후 북한철학계는 종래의 개념체계와 해석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조선철학사 연구 역시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따라 '조선철학의 한계들이 주체사상을 통해 극복되었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44]

---

42) 김혜선, 「주체의 건축미학사상은 가장 혁명적인 건축미학사상」,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2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건축미의 인식교양적 특징」,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4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실제로 전자의 글에서 '수령', '주체사상' 등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후자의 글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단어 선택이 주체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연구를 보여주는 특정 사례라고는 규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주체사상의 강한 규정력 아래에 철학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차츰 등장하고 있다는 정도의 정황적 판단은 단순한 비약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3) 북한에서 '조선철학'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 특징을 드러낸다. 1967년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고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조선철학 연구는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1970년대 한반도의 전통철학에 대한 북한철학계의 연구는 계급적 한계를 강하게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병수, 「과도기의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0, 54-56면. 1980년대에 들어 주체사상을 종착점으로 하는 '조선철학사'를 정립,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44) 박민철, 「북한 철학계의 동학·천도교 이해와 그 특징: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학논

이렇듯 북한철학계의 연구는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규정력 아래에서 수행된다. 2012년의 『철학연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주체사상 내지 주체철학은 이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이론화의 위계 속에서 최고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철학연구』에 게재된 거의 모든 글들은 통치자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론리학과 심리학은 사름들에게 론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워 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통치자의 언급에 대한 인용문이 글의 서두에 등장하는 방식이다. 즉 북한철학계가 철학을 연구하고 전유하는 방식이 주체사상 및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을 꼭짓점에 두고 진행된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분단의 학문' 그리고 '학문의 분단'을 넘어서

한편으로 2010년 이후 두드러지는 북한 철학연구의 경향변화는 북한의 국가정책 전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들어와 북한 학문계는 국가적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속에서 보편화, 실용화, 탈이데올로기화 경향들이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북한 학문이 전적으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학문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 주저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자기질문이다. 북한철학계의 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남겨진 일종의 색안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를 놓고 볼 때, 그 수준은 논외로 하고 2000년대 이후 북한 철학연구의 보편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재적 해석의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단 이후 진행된 남북 철학계의 연구들에는 그것을 추동시킨 어떠한 요

집』 제6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275-276면.

인, 또는 철학적 연구의 관점을 강하게 제공해왔던 어떤 규정력이 있다. 북에서는 분명하게 항일, 분단, 통일과 같은 역사성 위에서 외래철학사조의 창조적 적용에 몰두해왔던 것, 다시 말해 전통철학뿐만 아니라 계급성과 역사의식이라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 철학을 해석하고 비판하려고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철학연구는 어떠한 요인과 어떠한 관점 속에서 진행되었나를 자문한다면 북한철학계에 대한 비교우위적 시선은 그 타당성을 쉽게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이런 자기물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철학이 "현재적 관심보다는 역사적 사실 혹은 객관적 사실성을 중시"한다는 것, 철학을 물질적 토대와 연관시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몰역사의식에 빠졌다는 것", 그래서 "철학의 관념들이 초시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45]이라는 지적이야말로 쉽게 부인하기 힘든 타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의 상호 적대성은 단순히 한반도의 정치체제 속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학문세계가 만들어낸 앎의 체계에서도 은연중에 작동해왔을지도 모른다.

분단체제 아래에서 상대 학문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평가를 생산해온 이러한 '분단의 학문'들은 곧 '학문의 분단'을 만들어 왔다. 남북의 학문체계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동일하게 '한국학 vs 조선학'이라는 적대적 구도로 '분단'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를 주제와 분석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을 남쪽에서는 '한국학'으로, 북쪽에서는 '조선학'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한국학과 조선학은 상호대립적이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그 각각은 남북의 상이한 지식과 사상체계, 남북의 적대적 이념지향의 기반 속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학'이 주체사상과 동일시되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게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문성 자체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동시에 특정한 통치이데올로기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강하게 종속된 '한국학'이라는 평가 역시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45) 장원목, 「북한의 화담철학 해석에 대한 반성: 태허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23집, 한국동서철학회, 2002, 287면.

하지만 최근 들어 남북의 학문적 교류 및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그동안의 이데올로기적인 평가를 극복하자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남북 철학연구의 특징을 상호비교하고 그 성과들을 흡수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남북 철학계의 이해 차이를 단순히 소통불가능한 적대적 모순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각기 축적해 온 남북철학계의 상이한 연구가 철학이라는 학문영역의 풍부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진 않을까. 또는 북한철학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철학함'의 반성적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을 조감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희망일까.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분석해 온 몇몇의 연구들은 남북의 학문적 공존의 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왔다. 이를테면 북한철학 연구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조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과 분발의 기폭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학문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46] 또한 우리 철학연구와는 달리 북한철학계의 연구가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시, 소홀했던 부분의 재조명, 지배계층의 철학에서의 탈피 등은 앞으로 한국철학사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만하며[47], 나아가 '한국철학사'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제시된 바 있다.[48]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단의 학문 그리고 학문의 분단을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그간 각자 축적해 온 남북의 학문적 성과를 존중하는 한편, 학문의 분단, 다시 말해 한국학과 조선학이 갖는 이

46) 선우현, 「민족통일과 북한철학 연구의 의미」, 『인문학연구』 제4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0, 36-37면.
47) 성태용, 「『조선철학사』의 史實性 문제」,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1988, 44-47면.
48) 허남진, 「서평 북한의 조선철학사, 한국철학사연구에 하나의 자극」, 『역사비평』 통권 5호, 역사비평사, 1988, 325면.

론적인 단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앞으로 남북의 학문적 통합은 향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 잡은 학문의 고유한 체계는 그러한 사회의 가치, 정서, 문화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의 '국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획이자 방법론과 내용, 체계 등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 앞에 놓인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철학계의 연구를 내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시도들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강정순,「부을의 기호론리학적 견해」,『철학연구』제4호(루계 제9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9면.

강 철,「망륜리에 대한 일반적리해」,『철학연구』제4호(루계 제14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0-31면.

고창선,「동방철학사에서 인간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상」,『철학연구』제1호(루계 제10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41-42면.

김광협,「심리평가에 대한 리론적견해」,『철학연구』제3호(루계 제13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6-37면.

김심일,「피복심리의 본질」,『철학연구』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8-39면.

김인경,「장재의 〈태허즉기〉 사상연구」,『철학연구』제1호(루계 제11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46-48면.

김영준,「근대동방철학사상의 특징으로서의 반침략애국주의적성격」,『철학연구』제2호(루계 제13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8-40면.

김철만,「묵가의 인식론과 그 제한상」,『철학연구』제3호(루계 제8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38-39면.

_____,「제자백가철학에서 제기된 륜리도덕적견해의 제한성」,『철학연구』제1호(루계 제8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7-48면.

김학룡,「왕충이 제기한 인식론적 견해」,『철학연구』제1호(루계 제12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45-46면.

김혜선,「주체의 건축미학사상은 가장 혁명적인 건축미학사상」,『철학연구』제4호(루계 제12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34-35면.

_____,「건축미의 인식교양적 특징」,『철학연구』제3호(루계 제14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8-39면.

량호철,「사유법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그 제한성」,『철학연구』제3호(루계 제9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0-42면.

로은범,「류종관계에 근거한 론증방법」,『철학연구』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6-37면.

로정철,「류비추리의 본질」,『철학연구』제3호(루계 제11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37-38면.

류성일,「청년의 심리적특징」,『철학연구』제2호(루계 제14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38-39면.

리금철,「제3자배제법칙의 본질과 역할」,『철학연구』제4호(루계 제11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35-36면.

리성환,「중세인디아의 〈신인명〉론리에 대한 평가」,『철학연구』제2호(루계 제8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42-43면.

리영남,「고대, 중세 인디아철학에서 제기된 세계에 대한 견해의 특징」,『철학연구』제3호(루계

제8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40면.
_____, 「고대중국의 무신론과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3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41-43면.
리정옥, 「직업륜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4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2-33면.
리창덕, 「고대중국무신론의 의의」,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47-48면.
리 혁, 「정보륜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31-33면.
박광일, 「비형식론리의 발생」,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2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6-38면.
_____, 「론리학의 발전추세」,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2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9-40면.
박경숙, 「리론과 실천의 결합관계」,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11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5-47면.
박명남, 「심리상담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5-36면.
박정철, 「주의력결핍 및 다동증(ADHD)에 대한 일반적리해」,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8면.
안명옥, 「인간의 언어생활과 언어심리학」,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38-40면.
안철국, 「학습장애의 특징」,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3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37-38면.
유향선, 「론리적오유의 본질」,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26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1, 37면.
윤국철, 「맹자의 인정론」,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4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a, 40-42면.
_____, 「로자의 〈소국과민〉 사상」,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4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b, 45-47면.
장대국, 「환경륜리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30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34-36면.
장광현, 「과학적인식에서 리용되는 기호의 특징」,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36-38면.
장일경, 「고대중국의 덕치사상과 그 반동성」, 『철학연구』 제1호(루계 제10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38-40면.
최은희, 「심리평가의 발전력사」,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14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41-42면.
최철진, 「범진의 유물론사상」, 『철학연구』 제3호(루계 제9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39-40면.

최호찬, 「베이콘의 귀납론리사상에 대한 평가」, 『철학연구』 제4호(루계 제9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47-48면.
_____, 「볼 로야르롤리학사상과 그 제한성」,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9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46-47면.
_____, 「근대유럽의 전통론리학사상에 대한 평가」, 『철학연구』 제2호(루계 제12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0-44면.

강성윤, 「북한의 학문분류 체계」,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6, 1-24면.
김교빈, 「남북한 철학의 비교와 반성」, 『인문과학연구』 제3호,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15-27면.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0, 65-102면.
박민철, 「북한 철학계의 동학·천도교 이해와 그 특징: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6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271-302면.
선우현, 「민족통일과 북한철학 연구의 의미」, 『인문학연구』 제4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소, 2000, 23-39면.
성태용, 「『조선철학사』의 史實性 문제」, 『철학연구』 제23집, 철학연구회, 1988, 35-48면.
이병수, 「과도기의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10, 33-64면.
_____, 「북한철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상적 특징」, 『대동철학』 제67집, 대동철학회, 2014, 56-84면.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96-132면.
이 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11-37면.
장원목, 「북한의 화담철학 해석에 대한 반성: 태허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23집, 한국동서철학회, 2002, 255-296면.
전미영,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및 특성: 한국지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23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6, 199-241면.
_____, 「북한 '조선철학'의 연구경향과 학문적 특성」,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439-469면.
허남진, 「서평 북한의 조선철학사, 한국철학사연구에 하나의 자극」, 『역사비평』 통권 5호, 역사비평사, 1988, 319-325면.
홍건영, 「주체사상 체계 확립 이후의 북한철학: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제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4, 165-186면.

【Abstract】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Researches in North Korea since 2000s—Focused on *Research of Philosophy* (2000-2016)—

Park, Min-Cheol*

Philosophy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are an important subject. That is because, above all, looking at the research trends of the North Korean philosophy can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grasp the basis of the North Korea's knowledge, its thought system and ideology orientation. However, the analysis of philosophy researches in North Korea still seems to be inadequate. In particular,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study on North Korean philosophy, represented by "Juche Thought", works as a decisive factor that makes researches on North Korean philosophy hesitant. So first and foremost the study on North Korean philosophy faces the question of how to find the North Korean philosophy itself as an object of analysis, which is 'even so' free from the North Korea's ruling ideology. At this point,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of researches on North Korean philosophy,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y possibility that the philosophy (academic research) of the South/North can move toward the horizon of coexistenc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hilosophical papers published among *Research of Philosophy* magazine between 2000 and 2016, which is considered even so to have a weak political propaganda characteristic. Furthermore, through this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hilosophy researches in North Korea emphasized since the 2000s show that they are the maintenance of the regulation power of 'a synthesis of theory and practice', an increase of 'post-ideology' studies, and securing 'universality' of philosophy researches, etc.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philosophy, *Research of Philosophy*, Philosophy, Division(of Korea), Unification.

접수일: 2019.03.29.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

* HK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IHU), Konkuk University.